

2019 미얀마식품박람회 해외국가관별 주요트렌드 현황

I 2019 미얀마 식품박람회 개요 및 트렌드

1. 2019 미얀마 식품박람회(FHMM 2019) 개요

- 행사명 : 2019 미얀마 식품박람회(Food & Hotel Myanmar 2019) / 6회
- 기간 : 2019. 6. 5.(수) ~ 6. 7.(금) * 개장시간 : 10:00~18:00
- 장소 : Myanmar Expo (ME), Yangon, Myanmar
- 주최 : UBM
- 품목 : 식품 및 음료, 커피, 주류, 제과·제빵류, 호텔 관련 기자재 등
- 성격 : 관광·호텔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식음료, 호텔산업 관련 기자재를 중점적으로 전시하는 미얀마 최대 규모의 식품 및 호텔 박람회임
- 규모 : 4,500m²
- 참가업체 수 : 27개국 152개사 / 방문객 수 : 26개국 7,208명

2. 2019 미얀마 식품박람회 주요 트렌드(종합)

- 미얀마 시장 개방으로 해외 유통기업의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올해의 경우 미얀마 최대 유통기업인 City mart 계열사 외에도 독일계 유통매장인 METRO사가 참여하여 미얀마 B2B 시장 공략
- 현대적 유통망의 확산, 국민소득의 증가, 해외 브랜드 선호 등에 따라 고소득층 및 젊은층을 중심으로 농식품 소비문화가 변화하고 있으며, 소매 및 식자재 시장 성장세에 맞춰 육류 및 가공류, 유제품, 소스류, 음료, 커피, 과자류 등 다양한 수입 식품 전시 및 홍보

주요 국가관 트렌드

* 참여국가 (6개국) : 미국, 싱가포르, 필리핀, 말레이시아, 인도, 한국

1. 미국

□ 참가규모(업체수) : 7개사

□ 주요 참가품목 : 육류·가금류, 유제품, 와인, 냉동감자, 사과, 건조과실류 등

□ 국가관 주요트렌드 및 이슈상품

○ 부스장치

- 특별한 장치 없이 박람회 기본 Package로 구성된 부스 활용하여 국기 및 로고, 부스별 프린팅 이미지 부착

○ 이슈상품

- 미얀마 F&B 외식시장 및 식자재 시장 성장세에 따라 호텔 및 레스토랑, 식자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육류, 가금류 등 원재료성 품목들이 주를 이룸
- 그 외 냉동감자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홍보 및 캘리포니아 지역 인지도를 활용한 우유 및 유제품 홍보



국가관 전경(미국 농업부)



국가관 전경(유제품 코너)



국가관 전경(미국육류수출협회)



국가관 전경(미국가금류수출협회)

2. 싱가포르

- 참가규모(업체수) : 6개사
- 주요 참가품목 : 음료농축액, 초콜렛, 포장용기 등
- 국가관 주요트렌드 및 이슈상품
 - 부스장치
 - 싱가포르 국기색 및 슬로건(Tasty Singapore)을 활용하여 부스 상단 중앙 대형 배너 이미지 설치
 - 이슈상품
 - 미얀마 음료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깔라만시, 오렌지, 망고맛 등 다양한 음료농축액 상품 전시

3. 필리핀

- 참가규모(업체수) : 6개사
- 주요 참가품목 : 스낵류, 커피류 등 가공식품
- 국가관 주요트렌드 및 이슈상품
 - 부스장치
 - 오픈형 통합부스 형태로 바깥 면은 제품 전시 및 시식 진행 및 내부는 상담장으로 활용하였으며, 필리핀 과자 대표브랜드(Oishi) 등 홍보



국가관 전경(싱가포르)



이슈품목(음료농축액)



국가관 전경(필리핀)



이슈품목(스낵류)